

5조 적자→4조 흑자…‘탈 정유’로 극적 회복

국내 정유 4사가 올해 상반기 4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으로 마무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던 지난해 상반기와는 180도 상황이 바뀌었다.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탈 정유 전략에 있다. 전통 주력 사업인 정유 사업 대신 석유화학, 윤활유 등 비 정유 부분을 강화하며 체질 개선을 이뤄낸 덕분에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석유화학·윤활유 등 비 정유 강화 S-OIL, 영업이익 1조 2002억 달성 정제마진 회복 등 하반기 실적 기대 SK도 윤활유 사업 역대 최고 실적

●S-OIL, 사상 최대 반기 실적 달성



국내 정유사들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가장 좋은 실적을 달성한 곳은 S-OIL이다. S-OIL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조 2002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2016년 상반기 1조 1326억 원을 뛰어넘은 최고의 성적이다. 지난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1조1715억 원이었다. S-OIL은 “중질유 가격 약세로 싱가포르 정제마진이 좋지 않아 경제성이 낮은 역대 정제설비들은 가동률을 낮췄지만, 전사유 고도화시설(RUC)에서 중질유를 원료로 투입해 휘발유와 프로필렌(석유화학 원료)을 생산함으로써 최대 가동을 지속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기



극적 반등, 정유 4사 영업이익				
	S-OIL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2020년 상반기	-1조 1715억 원	-2조 2149억 원	-1조1651억 원	-5499억 원
2021년 상반기	1조 2002억 원	1조 90억 원	1조118억 원	6785억 원

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석유화학 복합시설의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수익 창출원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석유화학, 윤활 등 비정유부분이 반기 영업이익의 58.8%(7057억 원)를 합작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후세인 알 카타니 CEO의 위기대응 리더십도 주목받고 있다. 알 카타니 CEO는 2019년 6월 취임 직후 석유화학 복합시설의 준공식을 갖고 연말에 상업 가동을 개시했다. 대규모 설비의 운영 안정화, 공장 전체의 최적화, 효율성 향상 등 경제성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하반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S-OIL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주춤했던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송용 연료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정제마진 또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말했다.

S-OIL은 석유화학 비중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샤heen(Shaheen, 아랍어로 매를 의미)’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사업다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수소연료전지 기업 투자 등 신사업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SK이노, 3년 만에 상반기 매출 1조원 돌파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상반기 2조 2149억 원 영업손실에서 올해 상반기 1조 9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2분기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윤활유 사업과 손익이 크게 개선된 배터리 사업이 이끌었다. 윤활유사업은 정유사 가동률 축소 등 타이트한 기유 수급 상황으로 인해 마진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 분기 대비 894억 원 증가

한 226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09년 자회사로 분할한 이후 역대 최고 분기 영업이익이다.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에서 석화·윤활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64.4%로 절반을 넘어섰다.

배터리사업은 신규 판매물량 확대로 매출액 630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매출액(3382억 원) 대비 약 86% 증가하며, 지속적인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5236억 원에 이어 2분기 6302억 원을 달성해 2분기 연속 5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상반기 최초로 매출액 1조 원(1조 1538억 원)을 돌파했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도 흑자전환

GS칼텍스도 상반기 영업이익 1조 118억 원을 달성했다. 1분기 6236억 원에 이어 2분기 379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역시 석유화학 부문이 영업이익 상승을 이끌었다. 올해 2분기 정유 부문 영업이익은 1343억 원에 그쳤지만, 석유화학 부문에서 전 분기 대비 94.6% 늘어난 856억 원, 윤활유 부문에서 27.3% 늘어난 1592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정유 부분의 부진을 만회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상반기 6785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오일뱅크 역시 상반기 영업이익의 54.4%가 석화·윤활유 부문에서 나왔다.

현대오일뱅크는 현재 85%를 차지하고 있는 정유부문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40%대로 줄이고, 친환경 사업의 영업이익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중화학

스포츠동아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15

LG엔셀, 전기차 130만대분 핵심 원재료 확보 호주 AM사와 ‘니켈·코발트’ 공급 계약 체결



LG에너지솔루션 김중현 사장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배터리 기업들이 핵심 원재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4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중 배터리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양극재의 핵심 원재료인 니켈과 코발트를 대량으로 확보

하는데 성공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6일 호주와 배터리 원재료 생산 업체인 ‘오스트레일리안 마인즈(AM)’와 니켈 가공품(MHP, 니켈 및 코발트 산화물 혼합물)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하반기부터 6년간 니켈 7만1000톤, 코발트 7000톤을 공급받게 된다. 이는 고성능 전기차(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가능) 기준 약 130만대 분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 설립된 호주 AM은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니켈과 코발트를 생산하는 ‘스코니(SCO NI)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니켈과 코발트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ESG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중현 LG에너지솔루션 CEO 사장은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망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선도업체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SK에너지, ‘탄소 중립 석유제품’ 국내 최초 출시

생산부터 운송·소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중립화 기후 위기대응 적극…‘넷 제로’ 조기달성 목표

SK에너지(대표이사 조경목)가 ‘탄소 중립 석유제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

SK그룹이 ESG경영 차원에서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는 ‘넷 제로(Net Zero, 탄소 순배출량 0)’의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서다. SK에너지는 “탄소 중립 석유제품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소비 과정의 온실가스까지 감축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6월 그룹확대경영회의에

서 “향후 탄소 가격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을 감안하면 넷 제로는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로,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며 그룹 차원의 넷 제로 조기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SK에너지가 출시하는 탄소 중립 석유제품은 생산, 운송,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산정한 후 조립 사업 등 온실가스 흡수 및 감축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같은 양의 탄소배출권으로 상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립화 시킨 제품이다.

SK에너지는 이를 위해 맥쿼리 그룹과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상쇄와 관련된 협력을 추진해 지난 7월말 조립 및 산림 황폐화 방지 프로젝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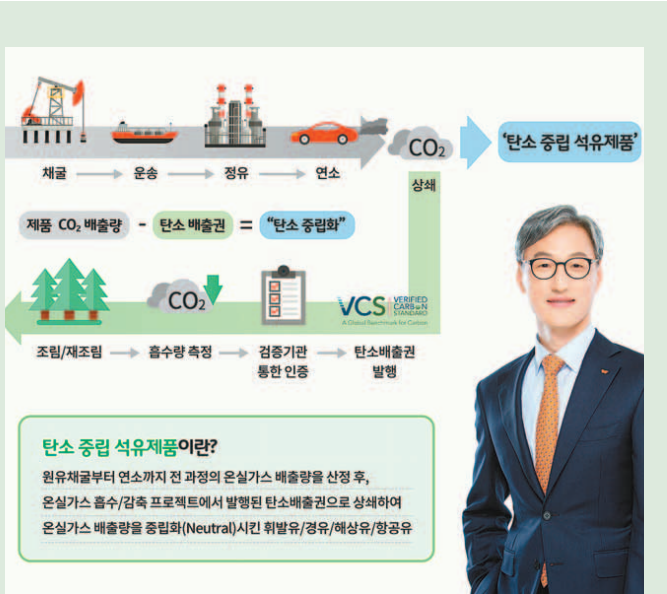
에서 발행된 고품질의 배출권 조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탄소배출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SK에너지의 탄소 중립 해상유, 항공유 등에 활용해 산업체 등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SK에너지는 올해 안으로 자사 주유소에서도 탄소 중립 휘발유 제품을 판매(가칭 그린 드라이브 캠페인)할 예정이다. SK주유소 이용 고객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참여와 착한 소비 확산을 유도하고 SK에너지가 판매하는 제품의 모든 밸류체인에서 넷 제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경목 SK에너지 사장은 “탄소 중립 석유제품 출시는 지구 온난화 방지 및 탄소 제로화 추구에 SK에너지는 물론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동참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라며,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SK그룹의 넷 제로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SK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K에너지가 넷 제로의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탄소 중립 석유제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 탄소중립 석유제품 출시 과정을 선보이는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사진제공 | SK에너지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18일(수) 음력: 7월 11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박: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박: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박: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박: 북		용 행운색: 흰색 길박: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박: 동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운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재미 본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이룬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부리지 말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박: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박: 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닭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개 행운색: 흰색 길박: 서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박: 서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가의 정신이 필요하다.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인 시기로 전환되어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박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에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오늘의 날씨			18일(수)		
서울	0/60		인천	0/60	
	21	31		22	30
강릉	70/60		대전	20/20	
	20	26		21	30
광주	0/60		대구	30/20	
	22	30		19	29
창원	60/20		제주	60/30	
	21	29		24	28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4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